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김 혜 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 지원 활동이란 이타적 행동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에서의 돕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은 크게 지원의 망, 지원 활동, 지원의 지각 혹은 효과라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남성과 여성은 각 영역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진밀한 지원의 망을 갖고 보다 활발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원의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요한 타인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함께 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전염'과,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주는 역할만을 반복함으로써 겪게 되는 '지원의 격차'에서 더욱 그러한 듯하다. 이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기질적 특성, 두 성이 갖고 있는 지위의 차이, 그리고 사회화의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관련지어 두 성에게 다르게 미쳤던 사회화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밝혀진 성별의 차이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사회적 지원과 이타적 행동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다'는 행위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많은 경우 돕는 행위는 '이타적 행동(altruistic behavior)'이라는 개념 내에서 연구되어 왔고, 이타적 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지고 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행하는 염려와 도움, 혹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게 하는 헌신(devotion)"(Myers, 1993, p.505).

사회심리학 내에서 이타적 행동과 사회적 지원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지원의 기본 요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로 정의된다면, 사회적 지원은 이타적 행동과 많은 공통점들을 지니고 있는 행동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지원은 이타적 행동과 혼용되어 이해되거나 아무런 구분 없이 대체되어 사용되곤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살펴 보기에 앞서, 사회적 지원과 이타적 행동과의 구분을 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비록 두 개념이 상당한 공통 부분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 행동과 이타적 행동은 몇 가지 부분에

서 차이점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이타적 행동에서 강조되고 있는 순수성('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이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사회적 지원에는 이기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행동만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이타적 행동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다룰 때에는 한 개인의 행동 저변에 깔려 있는 동기의 방향(순수성 vs. 목적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Vaux, 1988)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원 행동과 이타적 행동을 구별해 주는 요인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행동의 단위이다. 대다수의 이타적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이 보이는 한 단위의 행동(예: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기,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돕기,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한 걷기 대회에 참가하기)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의 단위로 삼는다(예: Chlopan, McCain, Carbonell, & Hagen, 1985). 이에 비해,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상황,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행해지는 일상의 행동들을 통괄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예: Macewen & Barling, 1988; Marshall & Barnett, 1992; Snapp, 1992).

마지막으로, 이타적 행동이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사회적 지원에는 타인의 가시적인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종의 습관적인 행동들도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친구로부터 필요한 돈을 빌어 오는 경우뿐 아니라, 그 개인이 친구나 형제 자매와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위안이나 정보를 얻는 것도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이타적 행동에 비해 사회적 지원은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의 돕는 행위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란 분명 '도움'이라는 요소를 중심에 담고 있지만 일

반적인 '대인 관계'의 맥락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본 논문이 목적하는 바인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유사한 혹은 상이한 경험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 지원이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19C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Durkheim(1897, 1951, Vaux, 1988에서 재인용)을 꼽을 수 있다. Durkheim은 사회적 지원을 병인학(aetiology)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개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신 건강을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타인들과 약한 사회적 유대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Durkheim의 지적 이후, 학자들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효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야기된 이혼, 실직 등의 사건들에서 개인들이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원에 따라 경감될 수 있는 가, 나아가 개인들이 일상의 모든 환경적 변화('stressor')에 대처할 때 사회적 지원은 그 개인의 대처 양식에 어떠한 정적, 부적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들이다. 이 과정에서 학자들은 연구 주제, 연구 대상들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었지만, 큰 맥을 이루는 일관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즉, 한 개인이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은 그 스트레스 자체를 해결하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악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역할 갈등을 덜 느끼고(Hemmigarn & Laing, 1991) 더 좋은 심리적 건강을 경험하고 있었다(Marshall & Barnett, 1993). 또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결혼 만족도

(Houston, Cates, & Kelly, 1992), 직업 만족도(Kissman, 1990)와도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결혼과 직업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체적 문제들을 적게 보고하고(Lee & Rittenhouse, 1992; Aston & Lavery, 1993), 심지어 15년간의 종단적 추적을 통해 볼 때 유의하게 낮은 사망률을 나타냈다(Hibbarb & Pope, 1992).

한편, 이렇게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 분야가 확산되어 가면서 오랜 기간동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온 점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의 정확한 의미(혹은 의미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대체로 ‘나 외의 세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심리·물리적 도움’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던 만큼, 그 개념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지원을 정의 내리는 학자들 간에는 사소하거나 때로는 심각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Cobb(1976)은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면서 타인과의 정보 교환과 자신이 보호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사회적 지원의 중요 요인으로 꼽은 반면, Kahn과 Antonucci(1980)는 개인의 정서적 측면인 애정(affect), 긍정(affirmation) 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지원의 근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Weiss(1974)는 사회적 지원이란 인간의 근본 욕구인 대인관계 욕구(interpersonal needs)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 6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애착(attachment), 사회적 융합(social integration), 가치 확인(reassurance of worth), 신뢰로운 협력(reliable alliance), 지도(guidance), 양육(nurturance)의 측면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비교적 최근의 학자들(Barrera, 1986; Dean & Ensel, 1982; House, Umberson, & Landis, 1988; Vaux, 1988)은 사회적 지원이 갖는 다면적(multidimensional)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지

원이란 다양한 요인들이 빚어내는 하나의 교류적(transactional) 과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이란 단순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변형 구조(metaconstruct)로서 이는 몇 개의 적절하게 구별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개별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합의 요약되고 있다(House & Kahn, 1985; Vaux, 1988; Duck, 1990).

사회적 지원의 첫 번째 구조는 지원의 망 혹은 자원(support network or resources)이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場)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는 한 개인이 일상의 생활에서 사회적 지원 활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예: 가족, 친구, 친지, 직장 동료, 이웃 등)의 총체로, 심리학적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물리적 개념(예: 크기, 긴밀 정도, 다양성, 구성원)들로 설명되어진다. 이는 한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총합,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 연결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요인이 중시되는 이유는 그 크기와 구조에 따라 사회적 지원 활동이 벌어지는 양상이나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 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지원적 활동(supportive behavior) 자체이다. 학자들마다 구체적 활동 종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도구적 또는 실질적 지원(instrumental or practical support), 정보적 지원(informational support)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원적 행동이 언제나 실제적 지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 개인이 지원적 행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행동 의도는 지원적이지만(즉,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함), 그 행동의 결과 자체가 언제나 도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즉, 지원적 행동 자체는 그 행동이 빚어내는 결과의 효용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관련된 행동의 양, 시기성,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의 심리·물리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 과정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지원 평가(support appraisal)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중시해야 된다는 입장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 (Vaux, 1988; Cutrona, Suhr, & McFarlane, 1990; Sarason, Sarason, & Pierce, 1990), 이에 따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자들은 수령된(received) 지원과 지각된(perceived) 지원간의 구분을 하게 되었다. 수령된 지원은 지원적 행동을 받은 절대적 양을 의미하고, 이를 재기 위한 하나의 예로 응답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 뒤에 제시된 도움의 수를 회상케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각된 지원은 지원적 행동 과정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도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각은 만족감, 보호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 애착의 정서, 소속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묘사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과정을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 특히 수령된 지원과 지각된 지원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안녕에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설명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수령된 지원과 지각된 지원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한 개인이 사회적 지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지원을 많이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는 그녀가 기대한 만큼의 유익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심리 육체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학자들은 점차 수령된 지원 보다 지각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밝혀진 사회적 지원의 유익성은 개인이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았느냐 보다 그 지원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Sarason, Sarason, Hacker, & Bashman, 1985; Sarason et al., 1990). 이러한 지각된 지원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 지원의 효용성을 고찰하면서 지난 몇 십 년간의 연구자들 중 단지 소수만이 수령된 지원을 측정 대상으로 삼은 반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지각된 지원을 그들의 연구 변인으로 채택했다는 사실(Vaux, 1988)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사

회적 지원에서의 인지화(cognitization: Coyne & DeLongis, 1986)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심리화(psychologizing: Lieberman, 1986)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에서의 남녀 차이

다른 많은 심리적 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성(gender)은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서 한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연구의 초기부터 학자들은 사회적 지원 과정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그 과정이 남녀에게 상이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원의 망, 지원의 행동, 지원이 주는 주관적 효과라는 3가지 구성 요소와 사회적 지원이 갖는 부정적 측면에서 각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지원의 망 혹은 그 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크기와 다른 질적인 지원의 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인생의 초기 그룹에 대한 관찰에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더 큰 그룹 속에서 활동을 하며(예: 스포츠나 놀이) 더 많은 수의 동년배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ever, 1976; Tietjen, 1982). 또한, 남아들에 비해 여아들은 보다 작은 그룹 속에서 놀이를 하고 일반적으로 한 명의 친구와 단짝을 이루고 그 또는 그녀와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ver, 1976; Tietjen, 1982). 학령기 소년과 소녀들(7-10세)이 갖는 사회망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Bryant(1985)는 앞서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년들은 소녀들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또래 혹은 연장자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소 적은 크기의 지원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고 있는 사람

들의 수를 유의하게 적게 보고하였으며(Weiss & Lowenthal, 1975), 친구와 지인(acquaintances)으로도 적은 수의 사람만을 꼽았다(Miller & Ingham, 1976, Vaux, 1988에서 재인용).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는 간단하게 결론 내려질 수 없다고 밝힌 일련의 연구들은 앞서의 결과와 반대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보다 커다란 지원망을 갖고 그 가운데서 보다 활발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aldwell과 Bloom(1982)은 사회적 지원을 재는 7가지의 척도를 통해서 이혼 직후(이혼 후 2달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cFarlane 등(McFarlane, Norman, Streiner, & Roy, 1983)과 Stokes 등(Stokes & Levin, 1986)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다 커다란 지원망을 갖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나아가, 또 다른 그룹의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밝힘으로써(예: Cronenwett, 1985; Stokes & Levin, 1986) 성별에 따른 지원망 크기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지원망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된 것과 달리, 성별과 지원망의 관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진 바는 지원망의 질적인 측면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보다 적은 수의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만 그들을 통해 보다 강한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Lever, 1986; Tietjen, 1982). 또한, 청년기의 소녀들도 이 시기의 소년들에 비해 더 작지만 보다 긴밀한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unter & Youriss, 1982).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지원망의 대소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깊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막역한 사람('confidantes')을 더 많이 갖고 있었고(Stokes & Levin, 1986), 남성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보다 많은

'친구'를 갖고 있음(Weiss & Lowenthal, 1975)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별에 따른 지원망의 크기는 한 마디로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다 긴밀한 사회적 지원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지원 활동

먼저, 사회적 지원 활동에서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밝혀진 점은 남자가 사회적 지원 행동을 동원시키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원 동원(support mobilization)이란 도움 요청(help seeking)과 대동소이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응 과정의 일환으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등의 계획화된 시도"(Duck, 1990, p.91)를 말한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지원망 속에서 보다 잦은 지원 동원을 한다고 밝힌다. 이 차이는 인생의 초기에서부터 비교적 분명한 듯 한데, 소녀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소년들에 비해 더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Nelson-LeGall, Gumerman, & Scott-Jones, 1983), 막역한 친구에게(대체로 1명) 그들의 경험을 더 자주 털어놓는 것으로 밝혀졌다(Belle & Longfellow, 1984; Wolchik, Sandler, & Braver, 1984). 이러한 경향은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도 관찰되고 있어서 청년기의 소녀들은 소년들에 비해 동년배들에게 더 자주 도움을 청하고(Cauce et al., 1982; Cohen et al., 1984), 성인 여성들도 성인 남성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이 공격, 사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own & Fox, 1979). 또한, 더 잦은 지원 동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일련의 연구들은 청년기, 성인기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 실제로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지원망 내에서 제공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Cauce, Felner, & Primavera, 1982; Cohen, McCowan, Fooskas, & Rose, 1984; Cronenwett, 1985; Stokes & Levin, 1986).

이상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자주 지원

을 요구하고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큰 행위, 즉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이에 관한 연구들은 역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그리고 더 잦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Vanfossen, 1981; Belle, 1982b; Belle & Longfellow, 1984; Belle, 1987). 먼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 대상의 성(gender)과 관계가 없는 듯하다. 즉, 여성은 동성 상대와의 관계에서도(남성끼리의 짝에 비해) 더 잦은 지원의 교환을 하고 또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인 남성에게 비해 더 많고 잦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Ensel, & Dean, 1986). 이러한 현상은 자신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던 혹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꼽아 보라는 요구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유의하게 '여성'(예: 어머니, 누나, 언니, 여동생, 여자 선생님 등)을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 지정한 결과들(Belle & Longfellow, 1984; Bryant, 1985; Furman & Buhrmester, 1985)에서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또다른 그룹의 연구들을 통해 남성에게 비한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원의 제공 정도가 밝혀진 바 있는데, 이는 성인 남녀 특히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이다. 이들 연구에서(Veroff, Douvan, & Kulka, 1981; Antonucci & Akiyama, 1987) 성인 남녀들은 자신이 가장 자주 도움을 청했고 또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결과 재미있게도,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한 명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목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부인이었다. 즉, 기혼 남성들은 자신의 부인을 가장 쉽게 도움 청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지원적 인물이라고 지목한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러한 만큼 자신의 남편을 막역한 친구(confidants)로 꼽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두 배우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인이 남편에 비해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이는 지원의 모든 측면에서 그러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inokur & Vinokur-Kaplan, 1990).

한편, 여성과 남성은 이렇게 다른 양의 지원적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비중을 두고 있는 지원의 종류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된 연구들(Lever, 1976; Tietjen, 1982)에서 보았듯 소년들은(3-4명의 팀 속에서) 게임, 스포츠 등의 육체적 활동을 교환하는 반면, 소녀들은(단짝의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적 활동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의 행동을 보다 세분해 본 연구를 통해(예: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도구적 지원 등) 성별에 따른 지원적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먼저 Brown과 Fox(1979)의 연구에서는 상담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자신이 향상된 점이 무엇인가를 남녀 대담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정서적 지원을 받았던 점을 지적한 반면, 남성들은 자신의 언어 소통 기술이 발전된 점을 가장 중요한 도움으로 꼽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막역한 친구의 핵심 요소로 위로해 주기, 걱정을 나눠갖기 등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남성들은 충고해 주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k & Alper, 1985).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지원적 활동에서 다른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Stokes & Wilson, 1984; Cronenwett, 1985).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은 질적으로도 상이한 면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우수한 질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elle, 1987; Cutrona, 1996). 이는 한 편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Wheeler 등(Wheeler, Reis, & Nezelek, 1984)은 남녀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2주일 동안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을 기록하게 하고 다양한 기준을 통해 그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은 공통적으로 '여성'과 가졌던 상호작용의 질을 높게 평가하였고, 여성과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가졌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로움을 덜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즉,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상호작용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 남녀 대학생들은

그 상호작용이 좋았다고 평가한 반면, 가장 질적으로 낮은 상호작용이었다고 보고된 것은 두 남성들 사이에 있었던 관계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활발한 사회적 지원 활동, 즉 보다 잦은 지원 요청을 하고 보다 많은 지원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이를 보여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상대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지원의 지각 또는 효과

엄격히 말해,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그 과정으로부터 어떤 효과를 얻어내느냐는 구별되는 의미이다. 사회적 지원을 지각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좋게 / 나쁘게, 만족스럽게 /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인지의 첫 단계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반면, 지원이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그 인지의 단계를 통한 개인이 심리적, 육체적 안녕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가의 의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단위의 사회적 지원 행동을 만족스럽게 지각한다는 것은 그 당시나 혹은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 개인의 심리 신체적 안녕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의 지각과 효과는 밀접하게 연결된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원의 지각과 효과에서 성별 차이가 있느냐를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대체로 더 긴밀한 사회적 지원망을 갖고 그 속에서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을 주고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만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제공받은 지원에 대해 더 만족스러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심리 신체적 상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원의 전체 과정에서 보다 이로운(favored) 위치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결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먼저, 남성과 여성이 지원적 활동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얼마나 만족스러운 지원을 경험했느냐의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들

을 내놓고 있다. 몇몇의 연구들(예: Westbrook & Viney, 1983; Vaux, 1988에서 재인용)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신이 받은 사회적 지원에 보다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덜 만족스러운 사회적 지원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Belle, 1982b, 1983). 반면,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음을 보고한다(Turner & Wood, 1985; Fusilier, Ganster, & Mayes, 1986). 한편, Cauce 등(Cauce et al., 1982)은 성별에 따른 지원적 활동의 평가는 연령에 변화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여성들이, 그러나 대학 시기에는 남성들이 자신이 받은 지원에 대해 더 만족해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러한 성별 차이는 없어짐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이 남성과 여성의 심리 신체적 안녕(well-being)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usaini 등(Husaini, Neff, Newsbrough, & Moore, 1982)은 배우자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남편과 달리 아내에게서만 스트레스 경감 효과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은 남편에게서 보다 아내에게서 우울감을 경감시키는데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obfoll, 1991).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을 유보시키면서 다른 그룹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은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보고하고 있다(예: Freedman, 1995, Cutrona, 199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비일관적 결과 속에서,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 활동의 특정 측면이 남녀에게 각기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먼저, 위에서 시사되었듯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원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측면은 그 과정 중에 정서적 도움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인 것으로 밝혀졌다(Vaux, 1988). 반면, 남성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 제시나 충고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함이 보고되고 있다(Mark &

Alper, 1985).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결과는 Vanfossen(1986)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단위의 도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Vanfossen은 여성의 우울을 경감시켜 주는 대표적인 요소는 배우자로부터의 인정(affirmation: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반면, 남성의 우울을 경감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배우자로부터의 인정(affirmation) 뿐 아니라 친밀감(intimacy: 중요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고, 애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성(性) 상대자인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상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 효과에서의 비밀관적인 결과를, 성별에 따른 지원 활동에서의 일관적인 결과(여성이 지원 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가 여성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해 주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만이 특별한(아마도 부정적인)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예상은 일련의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4)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 측면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사회적 지원이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묶여져 형성된 행동 과정이며, 이 과정의 주된 내용은 개인들간에 '도움'이 교환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도움의 과정에 과연 어떤 부정적 측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사회적 지원의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한 앞서의 연구자들과 맥을 달리하면서 최근의 몇몇 연구자들(예: Dressler, 1985; Belle, 1982a, 1982b, 1987)은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그녀가 지원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는 '지원으로부터 이

득을 얻지 못했음'과 구분되어야 하는 몇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부정적인 측면은 사회적 지원의 딜레마(dilemma of social support)로부터 야기된다. 이는, 개인의 지원망 크기가 늘어나면 많은 양의 혹은 좋은 질의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시간적 에너지가 커지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도 높아짐을 의미한다(King, Winett, & Lovett, 1986). 두 번째의 부정적 측면은 '스트레스의 전염'(contagion of stress: Wilkins, 1974)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사람들(즉, 지원망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따라서 많은 경우 이러한 관계 내에 있는 상대가 현재 겪고 있는 환경적 변화는 나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그 환경 변화가 좋은 것이어서(취업, 합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전이되는 경우라면, 이 지원 망 내에서의 지원 활동은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은 변화여서(실직, 이혼, 경제적 곤란 등)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나에게 '전염'된다면, 이 사회적 지원의 망은 내게 더 이상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없을 것이다. Vaux(1988)와 La Gaipa(1990)도 스트레스의 전염을 경고하면서 만일 지원망 내의 구성원들이 한 개인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이 사회적 지원망은 그 개인에게 지원적 체계라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취약 지구'(vulnerability, Vaux, 1988)임을 지적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인 측면은 한 개인이 주고받는 지원의 양 혹은 그 질이 상이할 때 생겨난다. 이는 동등 원리(homophily principle, Lazarsfeld & Merton, 1964, Lin et al., 1986에서 재인용)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개인들은 동등성(equality)과 상호성(reciprocity)을 유지하려 하고, 따라서 같은 양과 질의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을 때 그 관계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게 된다(Antonucci & Jackson, 1990). 만일 이 원칙이 깨어지고 한 개인이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에

있어 불균형이 생기거나 특히 계속적으로 공급자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또는 그녀는 '지원의 격차'(support gap, Belle, 1982b)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부정적 측면 중에서 여성과 남성이 노출될 위험이 다른 것, 환언하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더 자주 겪게 되는 부정적 측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집중된다. 먼저 한 편의 연구(Dohrenwend, 1976)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스트레스의 전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최근에 자신,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기억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실제로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게 일어난 생활 사건의 수는 남성과 여성 피험자에게 동일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타인에게 발생한 일들을 월등히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타인에게 일어난 생활 환경 변화에 의해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보다 두드러지는 성별 차이는 지원의 격차에서 보고되고 있다. 앞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보다 긴밀한 지원망을 갖고 더 잦은 지원 활동을 함을 살펴보았다. 만일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지원 관계를 맺게 된다면(동성간의 관계가 아닌),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더 자주 지원을 동원하고 또한 더 긴밀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성과의 지원 과정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지원의 격차를 감내하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소개된 결과들(Wheeler et al., 1984; Belle, 1987; Cutrona, 1996)에서처럼,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일반적으로 덜 만족스러운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질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여성은 지원의 격차 경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남성과 여성간의 지속적인 이자 관계(dyad), 즉, 결혼 관계에서 가장 확연하게 관찰되고 있다.

먼저, 기혼 그룹의 정신 건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일관적인 결과들에 대해 학자들은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관련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결혼이 개인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성을 보여주면서, 기혼자들은 독신자(미혼, 이혼, 별거의 그룹)들에 비해 좋은 정신 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예: Ensel, 1982, 1986). 여기서, 결혼이 갖는 유익성은 일정 부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듯해서, 기혼자들은 독신자들에 비해 더 큰 지원망을 갖고, 더 잦은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erstel, Riessman, & Rosenfield, 1985; Lin et al., 1986).

그러나, 응답자들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결혼이 갖는 유익성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다른 그룹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신 건강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유독 기혼자 그룹에서는 여성들(아내들)이 남성들(남편들)에 비해 현저하게 좋지 않은 정신 건강을 경험하고 있었다(Ensel, 1986). 이 결과의 중요한 원인으로 연구자들은 여성과 남성이 결혼 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의 양적 질적 차이를 지적한다. 이는 우선, 기혼 남녀가 다른 양상으로 서로를 막역한 상대나 지원 제공자로 보고한 위의 결과들(Veroff et al., 1981; Antonucci & Akiyama, 1987; Vinnokur & Vinokur-Kaplan, 1990)에서 분명하게 시사된 바 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성보다 더 많은 지원의 격차를 경험해야 함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은 아닌 듯 하다. 즉, 결혼 관계 속에서 여성은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로 지원을 주는 사람이고, 나아가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수호자'(kinkeeper, Belle, 1982b)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Belle, 1982a, 1982b, 1987). 이 경우, 그녀가 속해 있는 결혼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장은 그녀에게 커다란 지원의 격차를 가져다줌으로써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적인 효과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녀 차이의 이유

그렇다면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성과 여성은 왜 서로 다른 지원망의 긴밀성을 갖고, 상이한 종류의 지원을

중시하는 것일까? 또한, 남성과 여성들은 왜 사회적 지원의 과정에 다른 정도로 참여하고, 부정적 측면들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 남녀가 보이고 있는 상이함의 폭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제기되어 온 논의들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원에서의 성별 차이는 남녀가 갖고 있는 상이한 기질 특성(dispositional trait)을 통해 설명될 바 있다. 이 입장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내재적으로 보다 유동적인 자아 경계(flexible ego boundaries)를 지니고 있고, 인생 초기의 애착 형성 시기부터 보다 강한 관계 욕구(relational needs)와 감정이입(empathy)의 기초를 지닌다고 주장한다(Chodorow, 1978). 또한, 이 입장에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대인관계에서 보다 불명확하게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Chodorow, 1974) 이러한 자아 경계의 불명확성에 따라 타인들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게 된다(Kessler & McLeod, 1984)고 말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파트너로서 보다 유능하게 생겨났음을 주장한다(Wheeler et al., 1984).

그러나, 이상의 입장은 그러한 기질적 특성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성인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기질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입장에서는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활발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그로부터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의 입장에서는 두 성의 상이한 사회적 상황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즉, 사회적 지원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현재 두 집단이 처해 있는 지위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지위란 남녀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위와 우리 사회가 남녀에게 부여하는 가치 평가 등의 심리적 지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 사회에서 여성 또는 여성의 특질들은 낮은 평가를 받고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지위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낮

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속적인 즉, 타인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타인들의 욕구나 감정에 민감하게 되고 또한 타인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Miller, 1976). 또한, 이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작은 크기의 지원망을 지니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여성이 차지하는 주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들(가정관리, 자녀 양육 등)은 여성들이 보다 넓고 풍부한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고 지적한다(Rosario, Shim, Morch, & Huckabee, 1988). 그러나, 이 입장도 역시 사회적 지원의 성별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들도 결혼 생활 등에서 경험하는 지원의 격차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결과들(Korabik, McDonald, & Rosin, 1993)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잃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의 성별 차이를 남성과 여성이 지니고 있는 상이한 성역할(gender-role) 또는 성역할 정체감(gender-role identity) 때문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사회적 지원 연구자들에게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이기도 하다(Vaux, 1988; Curona, 1996). 여기서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과 함께 그 또는 그녀가 갖고 있는 성역할 혹은 성역할 정체감이 사회적 지원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Burda와 그녀의 동료들(Burda, Vaux, & Schill, 1984)은 남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원 과정은 응답자들의 성별보다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 정체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여성성, 심리적 양성성(androgynty) 집단은 심리적 남성성, 미분화(undifferentiated) 집단에 비해 지원망의 크기, 정서적 지원 정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나아가, 이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고 있는 구분된 성역할의 근본 원인을 한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한 상이한 역할 기대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노출되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 받고, 이러한 체계적인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지원 활동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 원칙, 특성들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는 남성들에게 독립적이고 도구적(instrumental)인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보다 양육적이고 표현적(expressive)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성들에게 타인의 정서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 애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Bem, 1974; Barbee et al., 1993; 임정빈, 정혜정, 1997). 이에 대해 Barbee와 그녀의 동료들(Barbee, Cunningham, Winstead, Derlega, Gulley, Yankeelow, & Druen, 1993)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지원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skills)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강조하여 양육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Whiting과 Whiting(1975)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남녀 역할의 차이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아들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엄마가 신생아를 돌보는 것을 거들도록 부탁받았고, 따라서 남아들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신생아의 요구(예: 배고픔의 표시, 안아달라는 표현)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인생의 초기부터 양육적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되고, 따라서 성장하면서 지원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편안하게 수행하는 근거가 됨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이러한 ‘어루만지는 기능’(stroking function, Bernard, 1971, Lin et al., 1986에서 재인용)은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상호의존적이어야 하는 사회적 지원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보다 독립적이고 목표달성적인 대인관계를 권장받은 남성에게는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개방과 상호 의존에 대해 여성에 비해 서툰 수준의 학습만이 이루

어질 수 있다(Procidano & Heller, 1983; Sarason et al., 1985; Barbee et al., 1993). 구체적으로, 연구들은 남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는 여아들에 비해 보다 자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Kaplan & Sedney, 1994). 성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자신을 개방하고 감정 표현을 할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우와 달리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부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Cutrona, 1996).

또한, 성역할 분화의 입장에서는, 우리사회가 갖는 이러한 상이한 역할 기대는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사회적 지원 활동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망조망’(network orientation, Tolsdorf, 1976, Eckenrode, 1983에서 재인용)을 갖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망조망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원망 구성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 갖는 믿음, 태도, 기대”(Eckman, 1983, p.512)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부정적인 조망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도움을 청함으로써 야기되는 대가가 그로부터 받을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지원의 기본 맥락(자기 개방, 감정 표현, 도움 요청)에 대해 체계적인 제재를 받아 온 남성들은, 이를 익혀야 할 더욱더 내면화시켜 온 여성들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망조망을 갖게 되고(Barbee et al., 1993) 따라서 사회적 지원 과정에 보다 소극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쉽게도, 이에 관한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연구결과들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맺는 말: 사회적 지원에서의 성별 차이가 갖는 의미

위에서의 결과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활발한 사회적 지원 활동을 하나, 여성이 그 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에 대해, 여성이 사회적 지원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사회적 지원 과정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경험이 그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지원 활동이란 결국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 또한 타당한 해석이 아닐 것이다.

대신, 이는 사회적 지원과 성별의 관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식 체계를 지적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인식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지원을 여성 특유의 혹은 여성만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점이다. 즉, 사회적 지원 과정에서 여성이 보여 온 활발한 활동에 대해 이를 여성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선천적 적합성 때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여성이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타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리는 것은 다분히 사회적 학습과 훈련에 의한 것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 사회화의 압력은 한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결국에는 한 개인의 선천적 특성을 압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관해 여성에게 내재적인 보살핌의 특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윤리학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Jagger (199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핌의 윤리학에 대한 최근의 입장들은... 여전히 보살핌을 여성과 관련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보살핌의 행동들(예: 아이 양육, 노인 보살피기, 좋은 가정 환경 유지하기, 간호하기 등)을 우선적으로 “여성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Marilyn Friedman이 지적하듯 보살핌의 윤리가 여성적이라는 인식은 경험적으로보다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감정이입적, 이타적, 양육적이고 민감하다는 문화적 기대에 따라 상징적이고 규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p.47).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성별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중 보다 주목되어야 할 점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지원 활동에 대해 내리는 있는 가치 평가이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으로 개인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 제거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유익성이 반복하여 입증되고 있는 행동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이 여성에게만 강조되고 남성은 그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장되는 것은 그 활동에 대해 내려진 사회의 가치 평가 때문이다.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부족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집단이 해야 할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이는 일에 대한 강한 가치 절하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성별에 따라 분리된 강조, 분리된 가치 부여로 인해 파생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렇게 다른 준비가 되어 있는 두 성이 만남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된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 본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지원의 격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활동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화는 여성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 듯 하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적은 정도의 자기 개방을 하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조망을 갖음으로 인해, 그들이 사회적 지원의 입증된 긍정적 효과들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성인 남성들이 성인 여성들에 비해 갖고 있는 제한된 지원망과 심도있는 지원 체계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Cutrona(1996)는 이것이 성인 남성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강한 심리적 의존을 하게 되고(지원의 제공자로서) 또한 그 배우자의 사망시 극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강조한다.

연구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밝혀져 온 여성의 우위성, 즉 보다 명확한 가시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집단은 여성과의 비교를 위한 목적 하에서만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 과정, 특히 그 효과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지 모른다. 만일 남성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남성 집단에서만 관찰되는 특성의 지원 활동이나 혹은 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적 측면들이 밝혀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들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점은, 사회적 지원, 나아가 돌봄의 윤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로 인해 타인을 '어루만지는' 기능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의 수행을 하게 된다면, 두 성의 심리 신체적 안녕은 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거라는 점이다. 여성에게 주장성과 독립성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남성에게는 사회적 지원이라는 돌보는 기능의 훈련이 필요한 때이다.

참 고 문 헌

- 카플란 · 세드니 저, 김태련 · 이선자 · 조혜자 역(1994). *성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정빈 ·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Antonucci, T. C. & Akiyama, H.(1987).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men and women. *Sex Roles, 17*, 737-749.
- Antonucci, T. C. & Jackson, J. S.(1990). The role of reciprocity in social support. In B. R. Sarason, I. G. Sarason, G. R. Pierce(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John Wiley & Sons.
- Aston, J. & Lavery, J.(1993). The health of women in paid employment: Effects of quality of work role, social support and cynic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Women and Health, 20*(3), 1-25.
- Barbee, A. P., Cunningham, M. R., Winstead, B. A., Derlega, V. J., Gulley, M. R., Yankeelow, P. A., & Druen, P. B.(1993). Effects of gender role expectations on the social support pro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9*(3), 175-190.
- Barrera, M. Jr.(1986).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 Belle, D.(1982a).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Sage.
- Belle, D.(1982b). The stress of caring: Women as providers of social support. In L. Goldv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Free Press.
- Belle, D.(198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moderators of stress. In R. Barnett, L. Bierner, & G. Barrel(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Free Press.
- Belle, D. & Longfellow, C.(1984). Turning to others: Children's use of confida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Bem, S.(1974). The measur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rown, P. & Fox, H.(1979). Sex differences in divorce. In E. Gomberg & V. Franks(Eds.), *Gender and disordered behavior: Sex differences in psychopathology*, New York: Brunner.
- Bryant, B. K.(1985). The neighborhood walk: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ources in Child Development, 50*, 122-145.
- Burda, P. Jr., Vaux, A., & Schill, T.(1984). Social support resources in college students: Variations across sex and sex-ro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119-126.
- Caldwell, R. A. & Bloom, B. L.(1982). Social support: Its structure and impacts on marital dis-

- rup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647-668.
- Cauce, A. M., Felner, R. D., & Primavera, J.(1982). Social support in high-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17-428.
- Chlopan, B. E., McCain, M. L., Carbonell, J. L., & Hagen, R. L.(1985). Empathy: Review of availabl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635-653.
- Chodorow, N.(1974).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M. Rosaldo & L. Lamphere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ver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5, 300- 317.
- Cohen, L. H., McGowan, J., Fooskas, S., & Rose, S.(1984). Positive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 567-587.
- Coyne, J. C. & Delongis, A.(1986). Going beyond social support: The role of social relationships in adapt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54-60.
- Cronenwett, L. R.(1985). Network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pregnancy. *Nursing Research*, 34, 93-99.
- Cutrona, C. E., Suhr, J. A., & MacFarlane, R.(1990). Interpersonal transactions and the psychological sense of support. In S. Duck(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London: Sage.
- Cutrona, C. E.(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ge as a resource in times of stress*. Thousand Oaks: Sage.
- Dean, A. & Ensel, W. M.(1982). Modelling social support, life events,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the context of age and sex.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92-408.
- Dohrenwend, B. S.(1976). Anticipation and control of stressful live events: An exploratory analysi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Dressler, W. W.(1985). Extended family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a southern black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39-48.
- Eckenrode, S.(1983). The 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s: Some individual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509-520.
- Ensel, W. M.(1986). Social cla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N. Lin, A. Dean, & W. Ensel(Eds.),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Academic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Fusilier, M. R., Ganster, D. C., & Mayers, B. T. (1986). The social support and health relationships: Is there 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143-153.
- Gerstel, N., Riessman, C. K., & Rosenfield, S.(1985). Explaining the symptomatology of separated and divorced women and men: The role of material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Social Forces*, 64, 84-101.
- Hemmelgarn, B. & Laing, G.(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ituational factors and perceived role strain in employed mothers. *Family Community Health*, 14(1). 8-15.

- Hibbarb, J. H. & Pope, C. R.(1992).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among men and women. *Women and Health, 12*(2), 85-102.
- Hobfoll, S. E.(1991).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reactions: Women filling the gaps. *Psychology and Health, 5*, 95-109.
- House, J. S., & Khan, R. L.(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Academic Press.
- House, J. S., Umberson, D., & Landis, K. R.(1988). Structures and process of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293-318.
- Houston, B. K., Cates, D. S., & Kelly, K. E.(1992). Job stress, psychological strain,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in women employed full-time outside the home and homemakers. *Women and Health, 19*(1), 1-26.
- Hunter, F. & Youniss, J.(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06-611.
- Husaini, B. A., Neff, J. A., Newbrough, J. R., & Moore, M. C.(1982).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onfidence among the rural marrie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09-426.
- Jagger, A. M.(1996). Western Feminist Ethics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First Meeting for Guest Speech in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Seoul, Korea.
- Kahn, R. & Antonucci, T.(1980).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Kessler, R. C. & McLeod, J. D.(1984). Sex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620-631.
- King, A. C., Winett, R. A., & Lovett, S. B.(1986). Enhancing coping behaviors in at-risk populations: The effects of time-management instruction and social support in women from dual-earner families. *Behavior Therapy, 17*, 57-66.
- Kissman, K.(1990). Women in blue-collar occupations: An exploration of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7*(3), 139-149.
- Korabik, K., Mcdonald, L. M., & Rosin, H. M. (1993).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women managers. In B. Long & S. 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La Gaipa, J. J.(1990). The negative effects of informal support systems. In S. Duck(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 Lee, K. & Rittenhouse, C. A.(1992). Health and perimenstrual symptoms: Health outcomes for employed women who experience perimenstrual symptoms. *Women and Health, 19*(1), 65-78.
- Leiberman, M. A.(1986). Social support: The consequences of psychologizing: A commenta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61-465.
- Lever, J.(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roblems, 23*, 278-287.
- Lin, N., Ensel, W. M., & Dean, A.(1986). The age structure and the stress process. In N. Lin, A. Dean, W. Ensel(Eds.),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Academic press.
- Macewen, K. E. & Barling, J.(1988). Interrole conflict, family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of employed mothers: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 241-250.

- Mark, E. W. & Alper, T. G.(1985). Women, men, and intimacy motiv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81-88.
- Marshall, N. L. & Barnett, R. C.(1992). Work-related support among women in caregiving occup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36-42.
- Marshall, N. L. & Barnett, R. C.(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64-78.
- McFarlane, A. H., Norman, G. R., Streiner, D. L., & Roy, R. J.(1983). The process of social stress: Stable, reciprocal, and medi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160-173.
- Miller, J.(197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 Myers, D. G.(1993). *Social psychology*, 4th ed. New York: McGraw-Hill.
- Nelson-LeGall, S., Gumerman, R. A., & Scott-Jones, D.(1983). Instrumental help-seeking and everyday problem-solv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B. DePaulo, A. Nadler, & J. Fisher (Eds.), *New directions in helping*(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Procidano, M. & Heller, K.(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4.
- Rosario, M., Shinn, M., Morch, H., & Huckabee, C. B.(1988).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and social supports: Testing socialization and role constraint theor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 55-69.
- Sarason, B. R., Sarason, I. G., Hacker, T. A., & Basham, R. B.(1985). Concomitants of social support: Social skill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469-480.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 (1990).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defining and assessing social support. In B. R. Sarason, I. Sarason, & G. R. Pierce(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John Wiley & Sons.
- Snapp, M. B.(1992).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black and white professional-managerial women. *Women and Health*, 18(1), 41-79.
- Stokes, J. & Levin, I.(1986).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ng loneliness from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1069-1074.
- Tietjen, A.(1982). The social networks of preadolescent childre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5, 111-130.
- Turner, R. J. & Wood, D. W.(1985). Depression and disability: The stress process in a chronically strained population. In J. R. Greenley(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Greenwich: JAI.
- Vanfossen, B. E.(1981). Sex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equ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130-143.
- Vaux, A.(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 Veroff, J., Douvan, E., & Kulka, R.(1981). *The inner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 Vinokur, A. D. & Vinokur-Kaplan, D.(1990). In sickness and in health: Patterns of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older married coupl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 215-241.
- Weiss, R. S.(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 In Z. Rubin(Ed.), *Doing unto others*. New Jersey: Prentice-Hall.

- Wheeler, L., Reils, H., & Nezelek, R.(1984).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ro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119-126.
- Whiting, B. & Whiting, J.(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kins, W.(1974). Social stress and illness in industrial society. In E. Gunderson & R. Rahe (Eds.), *Life stress and illnes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Wolchik, S. A., Sandler, I. N., & Braver, S. L. (1984). The social support networks of children of divorc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eeting, Toronto.

Social Support: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Hye-won Kim

Ewha Women University

Social support refers to a set of helping behaviors held in relatively broader daily-life areas and for longer period, compared with altruistic behavior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social support is the process consisting of three subconcepts(support network, support behaviors, and support effects), and that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wo genders in various aspects of social support. Specifically, women are tend to have more intensive network, an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giv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relative to men. Although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experienced by two genders have been reported to be inconsistent, women tend to be exposed more often to several negative aspects in social support process. The negative experiences are observed especially in the phenomena of 'contagion of stress' and 'support gap.' The differences of gender in social support proces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of dispositional traits, different social status, or different socializational pressur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urrent paper, the impacts of socialization on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rocess were specially stressed and meanings of the differences were discussed.